

문화기억이 지역공지 및 참여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의 매개효과*

전 소 현¹⁾ 하 규 영[†]

본 연구는 서울시 주변부 A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매개로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A지역 4개 행정동 주민 187명(남 86명, 여 101명; 19-65세)이며, 2025년 9월-10월 지역 기관 협조 및 온라인 커뮤니티·SNS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화기억,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지역공지, 참여행동의지는 각 5문항으로 측정하였고, SPSS 26.0과 AMOS 28.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 검증(EFA/CFA)과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기억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부트스트랩(5000회) 분석에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의 간접효과는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문화기억의 직접효과는 지역공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참여행동의지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 두 결과변수에서 상이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해 평가적 태도(지역공지)와 행동의도(참여행동의지)로 확장되는 경로를 도시 주변부 맥락에서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상징·정서 자원이 개인의 정체성 및 태도·의도 형성에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담·코칭 및 정신건강 실천 장면에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맥락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문화기억,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지역공지, 참여행동의지, 도시 주변부

1)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박사 수료

† 교신저자: 하규영,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조교수,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E-mail: stella1221@kw.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도시 발전의 불균형은 단순한 인프라 격차를 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도시 내부의 주변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이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분위기나 부정적 평판을 반복적으로 접하며, '우리 지역은 저평가된다'는 인식이 형성·강화될 수 있다(Wacquant, 2007). 이러한 부정적 지역 평판은 개인이 지역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사회적 접촉과 활동 참여를 줄이거나 지역사회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Permentier et al.,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향이나 동기 요인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은 이러한 현상을 주로 개인 내부의 적응 문제로 설명해 왔으며, 개인이 속한 지역 맥락과 그 안에 축적된 정서적·상징적 자원이 개인의 심리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최근 환경심리학과 사회·문화심리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자기 관련 태도와 행동을 기억과 정서가 매개된 외부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Assmann(1995)은 문화기억을 집단의 현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의미 체계로 개념화하였으며, Proshansky 등(1983)은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아정체성의 한 구성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Fredrickson(2001)의 긍정정서 확장-구축 이론은 긍정적 정서 경험이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장기적으로 심리적·사회적 자원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은 개인이 속한 지역과 그 지역에 대한 기억·정서적 동일시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자원 제약이나 부정적 평판이 논의되는 도시 주변부 맥락에서는, 지역에 축적된 문화기억이 지역 해석과 정서적 연결의 상징적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화기억의 자원성은 해당 기억이 개인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인식될 때 강화될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의미화된 지역 기억은 정체성 형성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자원성은 해당 기억이 공동체 내에서 널리 공유되고, 개인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될 때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서울시 주변부 A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매개로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개인이 인식·의미화한 문화기억이 정서적 유대와 지역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문화기억과 지역공지·참여행동의지 간 관계에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해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개인 내부 요인 중심으로 설명되어 온 도시 주변부 맥락의 심리·행동을 지역의 상징·정서 자원(문화기억)과 정체성 과정으로 연결하여 환경 맥락을 통합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를 병렬적 결과변수로 구분함으로써,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서로 다른 심리기능(평가적 태도/행동의도)을 예측하는 구조를 명확히 한다.

문화기억과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의 관계

공동체에 축적된 기억은 특정 지역을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장소로 인식하게 만드는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억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공유된 서사와 상징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호출되며, 지역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직한다. 이와 같은 기억의 집합은 문화기억(cultural memory)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문화기억은 공동체가 과거에 대해 유지하는 재사용 가능한 상징 자원의 총체로서,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미래의 행동을 이끄는 능동적 과정이다(Assmann, 1995). 이는 단순한 과거의 저장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재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Halbwachs, 1992). 이러한 기억은 일상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행을 통해 지속되며, 특히 의례와 실천을 통해 세대 간 전승된다(Connerton, 1989). 이런 반복적 실천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은 안정화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문화기억은 개인이 지역을 ‘우리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동일시를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기억은 ‘객관적 과거’ 자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축적된 서사와 상징이 개인에게 얼마나 인식되고 의미화되는지를 가리킨다. 즉, 문화기억은 개인이 지역의 이야기, 대표 장소·상징, 의례와 행사, 지역 담론 등을 통해 공유된 기억에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타인과의 상호작

용 속에서 이를 공유·재확인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다. 이는 문화기억을 개인의 사적 회상으로 환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수준의 기억 자원이 개인의 심리 과정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지각되고 해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 차원의 기억 자원이 개인에게 인식되고 경험되는 측면을 개인 수준에서 반영하고자 한다.

이처럼 개인에게 인식되고 공유되는 문화기억은 특정 지역과의 심리적 연결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affect-based local identity)은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소속감 등 정서적 경험에 기초한 심리적 연결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을 인지적으로 인식하거나 행정적 단위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해당 지역이 개인의 자아개념과 정서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지칭한다(Proshansky et al., 1983; Scannell & Gifford, 2010). 지역정체성의 인지기반 접근이 지역에 대한 정보와 제도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서기반 접근은 애착과 유대가 정체성 형성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한다(Altman & Low, 1992; Hidalgo & Hernández, 2001). 이와 같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공유된 문화기억 자원이 개인에게 인식되고 의미를 획득하는 지점에서 성립하며, 이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Lewicka, 2011). 기존 연구에서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본 연구는 두 이론이 공통적으로 주목해 온 장소에 대한 정서적 경험을 지역 맥락에서 조작화하여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개념을 구성한다.

Proshansky 등(1983)은 장소정체성을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의미 부여가 자아

정체성에 통합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Altman과 Low(1992)은 장소애착을 개인·집단·문화가 특정 환경과 맺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며, 이러한 애착이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와 행동적 태도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들 이론이 제시한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으로 전환되는 핵심 기저는 정서적 동일시 과정에 있다. Scannell과 Gifford(2010)는 사람(person)—장소(place)—과정(process) 모형을 통해, 정서적 과정이 개인과 장소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동일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임을 제시하였다. Hidalgo와 Hernández(2001)는 장소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정서적 유대가 인지적 동일시와 구분되며, 정서적 유대가 장소와의 관계 형성에서 선행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문화기억이 개인이 특정 지역과 맺는 정서적 유대와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Lewicka(2011)는 역사적 기억이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시민적 태도와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집단기억이 장소의 의미와 도시정체성 형성과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박재민, 김무한,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문화기억이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정체성 형성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과 지역공지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적 기억이 개인의 지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부심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해 왔다(De

Bres & Davis, 2001; Lewicka, 2011). 다만 이러한 논의는 문화기억이 개인의 정체성 차원에서 어떠한 심리적 의미를 획득할 때 평가적 태도로 조직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 왔다. 이때 정서기반 지역정체성과 지역공지는 모두 긍정정서를 포함할 수 있으나, 개인-지역 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나는 이 지역에 속한다'는 자기정의와 결속(소속감·동일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지역공지는 그러한 결속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구성원인 것이 자랑스롭다'는 평가적 판단과 가치 부여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Lalli, 1992; Luhtanen & Crocker, 1992; Twigger-Ross & Uzzell, 1996). 따라서 두 변인은 '정의 대 평가'라는 심리적 기능의 차원에서 구별된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형성되면, 특정 지역은 개인에게 '나와 관련된 대상'으로 위치되며 그 지역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만족 수준을 넘어 자부심과 같은 평가적 태도로 조직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공지(local pride)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평가와 자부심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의 환경적 조건에 대한 거주만족감이나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인 장소애착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역공지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지만, '나는 이 지역의 구성원임이 자랑스롭다'는 평가적 판단과 자기개념과 관련된 의미를 포함하는 고차원적인 태도적 정서이다. Lalli(1992)는 지역공지를 특정 장소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된 긍정적 자기평가로 정의하였다. 즉 지역공지는 개인-지역 결속이 자기평가와 결합해 형성되는 평가적 정서로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평가 차원으로 확장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지역금지로 이어지는 경로는 장소정체성 연구에서 제시해 온 ‘자아-장소 결합’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Twigger-Ross와 Uzzell(1996)은 개인이 특정 장소를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할수록, 그 장소에 대한 평가는 자기개념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직된다고 보았다. 이때 평가는 단순한 환경 만족 수준을 넘어, “그 장소에 속한 나”에 대한 의미 부여와 결합되면서 장소 자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게 된다. Lalli(1992)의 지역금지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지역을 자아와 관련된 대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지역에 대한 평가가 ‘자랑스러움’의 형태로 조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평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금지와 같은 평가적 태도로 조직될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맥락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De Bres와 Davis(2001)는 지역의 문화자산과 장소에 대한 애착이 지역자부심 형성과 관련됨을 보여주었으며, Rollero와 De Piccoli(2010)는 장소와의 정서적 유대가 지역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엄영호와 엄광호(2017)는 장소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지역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과 참여행동의지의 관계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문화적 기억이 개인의 공동체 참여와 관련된 참여행동의지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고해 왔다. 다만 문화기억이라는 상징적 자원이 실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참여행동의지(participation intention)는 개인이 지역사회 현안이나 공동체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행동지향적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태도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행되기 직전의 준비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며, 본 연구의 참여행동의지는 이러한 행동의도를 지역사회 참여 맥락에 적용한 개념으로서 공동체 관련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과 연관될 수 있다(Verba et al., 1995).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참여행동의지로 확장되는 과정은 개인이 장소와 맺는 정서적 유대가 심리적 자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작동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Fredrickson(2001)의 긍정정서 확장-구축 이론은 정서적 결속이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즉, 장소와 정서적으로 밀착된 상태는 개인이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자아 범위 안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심리적 확장은 공동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탐색하려는 행동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Devine-Wright(2009)는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가 깊을수록 해당 장소를 보호하거나 개선하려는 실천적 행동 의지가 발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서-행동 간의 연결은 국내 연구(백경미 등, 2017)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평가적 태도인 지역금지와 행동지향적 의지인 참여행동의지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으나, 두 결과

변수는 서로 다른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공지는 지역을 자아와 관련된 가치 대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내면적 태도인 반면, 참여행동의지는 지역과의 결속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외연적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에서의 태도는 특정 행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므로, 본 연구의 지역공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지역공지는 참여행동 자체에 대한 태도라기보다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 가치에 대한 평가적 정서이며, 참여행동의지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행동의도이다. 본 연구는 두 변수를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의 연속적 인과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병렬적 결과변수로 설정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문화기억이 개인이 장소와 맺는 정서적 경험을 통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으로 내면화되고, 형성된 정체성이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매개 구조를 핵심 모형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제할 이후에도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는 연구문제 차원에서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1. 문화기억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지역공지에 정(+)²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참여행동의지에 정(+)³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문화기억과 지역공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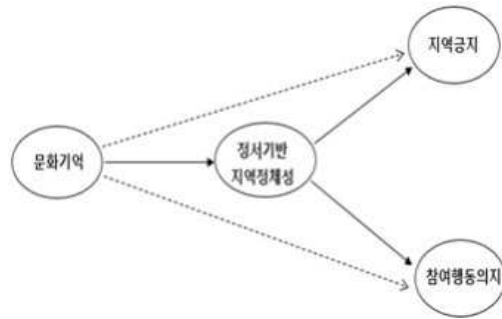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5.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문화기억과 참여행동의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1. 문화기억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제할 이후에도 지역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가?

연구문제 2. 문화기억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제할 이후에도 참여행동의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주변부 A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 보호와 주변부 지역에 대한 잠재적 낙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지역은 A 지역으로 익명 처리하였다. 다만 연구의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역 맥락을 기술하였다. A지역은 1970-8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공간 재편 과정에서 주거 중심지로 기능한 지역이며(Amalia, 2019), 2024년 기준 1인당 지방세는 서울시 평균의 약 60% 수준이다(서울특별시, 2025). 또

한 1인당 문화기반시설 면적은 0.89㎡로 서울시 평균(1.24㎡)보다 낮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한편 A지역은 장기 거주가 누적된 생활권이며,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자원, 지역기관·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일상적 교류가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은 지역에 관한 이야기와 상징이 유지·재생산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 제약과 문화적 축적이 공존하는 조건이 문화기억이 개인에게 인식·의미화되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토하기에 A지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자는 A지역 4개 행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표집 과정에서는 행정동별 응답자가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모집 경로를 분산하였으며, 성별과 연령대별 응답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특정 범주에 응답이 집중되지 않도록 추가 모집 대상을 조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5년 9-10월에 지역 기관 협조 및 온라인 커뮤니티·SNS를 통해 진행되었고, 전체 응답 중 온라인 설문은 32%였다. 온라인 설문에서는 응답시간이 과도하게 짧거나 동일 문항에 동일 응답 패턴을 반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참여 보상은 제공하지 않았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187명(남성 86명, 여성 101명)이며, 연령은 19-65세(M = 41.3, SD = 12.3)였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대한 설명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네 변인의 문항은 각 구성개념의 이론적 정의와 관련 선행연구의

표 1. 연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빈도수 (명)	구성비율 (%)	
성별	남성	86	46.0
	여성	101	54.0
연령	20대	44	23.5
	30대	44	23.5
	40대	50	26.7
	50대	35	18.7
	60대이상	14	7.5
거주년수	1-5년	84	44.9
	6-10년	72	38.5
	10년이상	31	16.6
거주 행정동	가동	45	24.1
	나동	51	27.3
	다동	53	28.3
직업	라동	38	20.3
	학생	15	8.0
	직장인	94	50.3
	자영업	37	19.8
	주부	23	12.3
기타	18	9.6	

측정 차원을 토대로 연구 맥락에 맞게 수정·재구성하였다. 문항 구성 과정에서는 개념적으로 인접한 문화기억과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구분될 수 있도록, 문화기억은 지역의 역사·상징·장소·공유된 이야기에 대한 인식과 의미화 수준으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애착·소속감·유대감 등 정서적 결속 상태로 조작화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예비조사(n = 20)를 실시하여 문항 이해 가능성, 표현의 명료성, 응답 분포 및 반응 패턴을 점

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문항 표현을 수정하였다. 다만 별도의 외부 전문가 패널을 통한 내용타당도 평정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정·재구성 문항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보완적으로 확인하였다.

문화기억

문화기억은 특정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상징에 대한 인지적 이해, 그 의미에 대한 개인적 해석, 그리고 기억의 유지·전승 의향 수준으로 조작화하였다. 본 연구 맥락에 직접 적용 가능한 번안 척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화기억을 집단적으로 유지·재구성되고 전승되는 기억 자원으로 보는 논의(Assmann, 1995; Halbwachs, 1992; Connerton, 1989)를 개념적 준거로 삼고, 장소기억 측정 문항 구성(Lewicka, 2008)을 참고하여 문항을 수정·재구성하였다. 총 5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시 문항은 'A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 'A지역은 나의 생활과 지역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등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기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서적 애착·소속감·유대감에 기반한 심리적 연결 상태로 조작화하였다. 본 연구 맥락

에 직접 적용 가능한 번안 척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장소애착 및 장소정체성 측정에서 사용된 문항 구성(Williams & Vaske, 2003; Hidalgo & Hernández, 2001)을 참조하되, 장소정체성의 의미 통합 관점(Proshansky et al., 1983)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수정·재구성하였다. 총 5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시 문항은 'A지역에 대해 정서적으로 애착을 느낀다', 'A지역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준다' 등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였다.

지역공지

지역공지는 특정 지역의 구성원임에 대한 자부심과 그 지역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 수준으로 조작화하였다. 본 연구 맥락에 직접 적용 가능한 번안 척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지역 관련 정체성의 평가적 차원을 포함한 측정 문항(Lalli, 1992)과 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Luhtanen & Crocker, 1992)을 참조하여 문항을 수정·재구성하였다. 총 5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시 문항은 'A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A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다' 등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공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다.

참여행동의지

참여행동의지는 특정 지역의 공동체 발전 및 지역 관련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행동의도 수준으로 조작화하였다. 본 연구 맥락에 직접 적용 가능한 변인 척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행동의도 문항 구성 원리를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을 준거로 삼고, 지역사회 참여 맥락에서의 문항 구성 방식(Ohmer, 2007)을 참조하여 문항을 수정·재구성하였다. 총 5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시 문항은 'A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 행사,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 'A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활동이나 회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등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행동의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수정·재구성된 문항들이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으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표본의 전체 20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확인하였다. 각 척도는 선행이론에 근거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척도별 EFA를 별도로 실시하기보다 전체 문항 수준에서 구성개념 간 구분성과 교차적

재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수정·재구성 문항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집중타당성은 표준화 요인부하량,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값(AVE)을 통해 확인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각 잠재변수의 \sqrt{AVE} 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주요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수행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χ^2 , CFI, TLI, RMSEA, SRMR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5,000회) 방법으로 검증하였고,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결 과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문화기억,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지역금지, 참여행동의지)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표 2에,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네 변인의 평균은 모두 2.8점 전후로 나타

표 2. 주요 변인 기술통계치

	<i>M</i>	<i>SD</i>	왜도	첨도
문화기억	2.84	1.13	.016	-.935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2.73	1.15	.059	-1.136
지역금지	2.74	1.08	.001	-1.057
참여행동의지	2.83	1.13	-.072	-1.058

표 3. 주요 변인 상관분석

	1	2	3	4
(1) 문화기억	-			
(2) 정서기반 지역 정체성	.37***	-		
(3) 지역궁지	.31***	.47***	-	
(4) 참여행동의지	.31***	.38***	.13	-

주. * $p < .05$, ** $p < .01$, *** $p < .001$

나 척도 중간값인 3.0에 근접하였으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표준편차는 약 1.1 내외로 응답자 간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비교 집단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 지역 표본에 기반하므로, 이러한 평균 수준을 A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도시 주변부 맥락의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통계 결과는 본 표본에서 주요 변인의 전반적 응답 경향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 미만으로 확인되어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문화기억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r = .37, p < .001$), 지역궁지($r = .31, p < .001$), 참여행동의지($r = .31, p < .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지역궁지($r = .47, p < .001$) 및 참여행동의지($r = .38,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지역궁지와 참여행동의지 간 상관은 $r = .13, p = .078$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궁지와 참여행동의지를 병렬 결과변수로 설정한 본 연구모형과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요인구조와 측정모형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전체 20개 측정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주축 요인법과 Varimax 회전을 적용한 결과,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에 부합하는 4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누적 설명분산은 53.1%였으며, 요인부하량은 .56 ~ .81 범위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4요인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적합도는 $\chi^2/df = 1.17$, CFI = .979, TLI = .982, RMSEA = .030, SRMR = .04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또한 그림 2에 제시된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62 ~ .85 범위로 확인되어, 각 문항이 해당 잠재변수를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네 잠재변수의 CR은 .830 ~ .858, AVE는 .503 ~ .548로 확인되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판별타당성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네 잠재변수의 \sqrt{AVE} 는 .709 ~ .740으로, 모든 구성개념 쌍에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상회하였다. 개념적으로 가장 인접한 문화기억(.723)과 정서기반 지역정체성(.740)의 \sqrt{AVE} 역시 두 변인 간 잠재상관(.448)보다 크게 나타나, 두 구성개념이 이론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경험적으로는 구분됨이 확인되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chi^2(df)$	χ^2/df	CFI	TLI	RMSEA	SRMR
191.41 (164)	1.17	.979	.982	.030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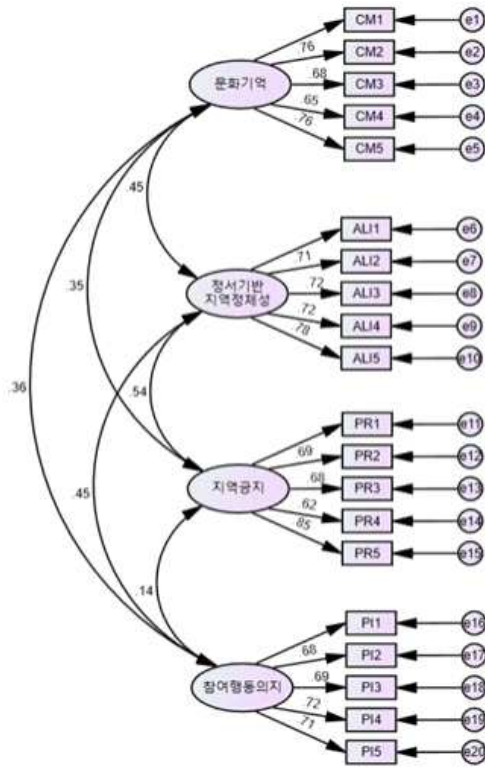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경로와 요인부하량
 주. CM=문화기억, ALI=정서기반 지역정체성, PR=지역금지, PI=참여행동의지

표 5. 측정모형 집중타당성

잠재변수	표준화 요인부하량	CR	AVE
문화기억	.653~.762	.845	.523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713~.778	.858	.548
지역금지	.618~.848	.830	.503
참여행동의지	.676~.789	.842	.516

이상의 결과는 본 표본에서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에 부합하는 4요인 측정구조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다만

표 6. 측정모형 판별타당성

	1	2	3	4
(1) 문화기억	.723			
(2)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448	.740		
(3) 지역금지	.352	.542	.709	
(4) 참여행동의지	.360	.454	.144	.718

주. 대각선의 굵은 값은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이며, 비대각선 값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임.

EFA와 CFA가 동일 표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본 결과는 독립 표본에 의한 교차타당화가 아니라 본 표본 내에서 측정모형의 적합성과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지역금지와 참여행동의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하였다. 또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문화기억과 두 결과변수 간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chi^2/df = 1.18$, CFI = .980, TLI = .977, RMSEA = .031, SRMR = .052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문화기억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B = .45$, $SE = .09$, $\beta = .45$, $p < .001$). 지역금지에 대한 경로에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B = .40$, $SE = .09$, $\beta = .47$, $p < .001$), 문화기억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11$, $SE = .08$, β

표 7.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chi^2(df)$	χ^2/df	CFI	TLI	RMSEA	SRMR
194.59 (165)	1.18	.980	.977	.031	.052

표 8.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β	C.R.
문화기억 ->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45 (.09)	.45***	5.05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 지역금지	.40 (.09)	.47***	4.69
문화기억 -> 지역금지	.11 (.08)	.14	1.52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 참여행동의지	.38 (.10)	.35***	3.72
문화기억 -> 참여행동의지	.21 (.10)	.20*	2.14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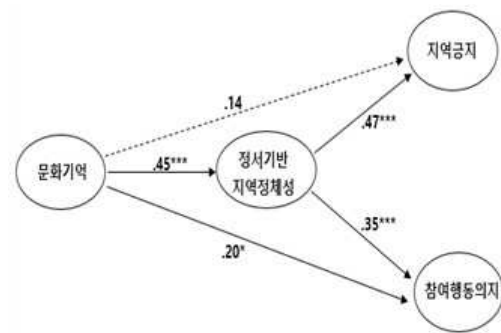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주. 수치는 표준화 경로계수(β)임.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비유의한 경로를 의미함.

= .14, $p = .13$). 참여행동의지에 대한 경로에서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유의한 정(+)³의 영

향을 미쳤으며($B = .38$, $SE = .10$, $\beta = .35$, $p < .001$), 문화기억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21$, $SE = .10$, $\beta = .20$, $p = .03$). 내생변수의 설명력은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R^2 = .20$, 지역금지 $R^2 = .30$, 참여행동의지 $R^2 = .23$ 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표 8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5,000회) 분석을 실시하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확인

표 9.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경로	직접	간접	CI	전체
문화기억 ->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 지역금지	.14	.21	[.12, .35]	.35
문화기억 ->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 참여행동의지	.20	.16	[.09, .26]	.36

주. 직접, 간접, 전체효과는 표준화 계수 β 임. CI는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임.

하였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매개로 지역금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고($\beta = .21$, 95% CI [.12, .35]), 문화기억의 지역금지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매개로 참여행동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16$, 95% CI [.09, .26]), 직접효과($p = .03$)도 유의하였다. 전체효과는 지역금지에서 $\beta = .35$, 참여행동의지에서 $\beta = .36$ 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H1),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지역금지(H2)와 참여행동의지(H3)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의 매개효과(H4, H5)는 모두 지지되었다. 한편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제한 후 문화기억이 지역금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문화기억이 참여행동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 주변부 A지역 주민의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매개로 지역금지와 참여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

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는 지역에 대한 정서적 동일시가 개인의 내적 성향이나 거주 만족과 같은 개인 중심 요인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고, 지역의 역사적 서사·상징 자원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동체 차원의 기억 자원이 개인에게 인식·의미화되는 과정에서 정서적 결속으로 조직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화기억-정서기반 지역정체성 경로가 서울시 주변부로 분류되는 A지역 주민 표본에서도 확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 낙인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본 결과를 주변부 맥락을 배경 조건으로 한 문화기억-정서기반 지역정체성 경로의 확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기억이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자기 이미지를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관점과 연결되며(Assmann, 1995), 본 연구 맥락에서는 지역의 이야기와 상징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자기정의의 정서적 재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문화기억은 회상이나 향수에 머무르기보다, 개인이 지역을 자아와 관련된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정서적 유대를 형

성하도록 하는 촉발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Lewicka(2011) 역시 역사적 기억이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화함을 실증한 바 있어, 본 결과 해석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 불리함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환원하는 ‘결핍 중심 접근’을 보완하고, 지역의 상징·정서 자원을 개인이 동원 가능한 심리적 자원으로 해석하는 ‘자원(강점) 중심 관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이 변인이 두 결과변수의 공통 선행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공지에서 문화기억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대한 평가적 태도가 문화기억의 단순 인지나 친숙성만으로 형성되기보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의 핵심 기저인 정서적 동일시가 구성된 이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개인이 특정 장소를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할수록 그 장소에 대한 평가가 자기개념과 결합된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Twigger-Ross와 Uzzell(1996)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한편 참여행동의지에서는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한 간접효과와 함께 문화기억의 직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두 결과변수가 수행하는 심리적 기능의 차이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지역공지는 지역을 자아와 관련된 가치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면적 태도이므로, 문화기억이 지역공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서적 동일시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참여행동의지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행동지향적 의도이므로, 정서적 동일시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상징·이야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참여 가능한 활동이나 실천 과제를 떠올리게 하는 인지적 단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특정 장소나 지역 서사에 대한 이해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행동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행사 참여, 보존, 홍보와 같은 실천 영역을 상기시킴으로써 참여행동의지를 직접 환기했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인지적 각성, 참여기회 인식, 공동체 책무감 등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직접효과의 구체적 기제는 후속 연구에서 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보다 정교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모형에서는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를 각각 예측하는 병렬적 결과 구조가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공지와 참여행동의지 간 순차적 경로를 포함한 경쟁모형을 직접 비교한 것은 아니므로, 두 결과변수 간 가능한 인과적 관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코칭 및 정신건강 실천 장면에서 지역정체성을 개인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는 맥락 요인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심리적 경험을 지역 및 공동체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국내 연구들과도 연결된다(류승아, 2023; 정태연 등, 2008). 국내에서도 장소애착이 지역도시 거주자의 정신적 웰빙과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안치순, 2022). 다만 본 연구는 정신건강 증상이나 상담 성과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개입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지역에 대한 낙인 경험, 소속감 결여, 공동체로부터의 거리감을 호소하는 내담자나 피코치의 경우, 지역 경험과 장소에 부여한 정서적 의미는 자

기이해와 사회적 관계 경험을 탐색하는 보조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적용 가능성은 후속 연구에서 별도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 설계이므로 변인 간 인과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문화기억이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경로와 달리,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이 높은 개인이 지역의 문화기억에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의미화할 가능성, 즉 역방향의 경로도 이론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설계 또는 문화기억 관련 자극·경험을 포함한 준실험적 접근을 통해 경로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기억은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 상징·서사 자원에 대한 인식이지만, 문화행사나 장소 경험에 대한 노출에 따라 개인의 의미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은 이러한 경험이 애착과 소속감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으며, 지역금지와 참여행동의지는 평가적 태도와 행동의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가변적인 결과변수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역금지과 참여행동의지를 병렬적 결과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두 결과변수 간 순차적 경로를 포함한 경쟁모형을 별도로 비교하지는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병렬모형과 순차모형의 상대적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에 기반하므로 공통방법편의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참여행동의지는 '의도' 수준이므로 실제 참여 행동과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 빈도·지속성 등 실제 행동지표를 결합하거나 시차 측정을 통해 의도와 행동의 관계를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일 지역 표본이라는 점에서 특

정 지역 사례연구의 성격을 지니며,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 낙인·상대적 박탈감 등 주변부성을 구성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을 별도로 측정하지 못하였고, 부정적 문화기억이나 낙인화된 지역 기억의 효과 역시 검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 지역의 비교, 또는 관련 변인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문화기억의 심리적 작동 조건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표집 과정에서 자기 선택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 문화·공동체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응답자가 과대표집되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집 경로를 활용하거나 표본 구성의 균형을 강화하여 결과의 재현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 문항을 참조해 수정·재구성한 형태이므로, 다른 표본과 맥락에서 반복 검증을 통해 타당화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동일한 표본에서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모두 실시하였으므로, 측정구조의 안정성을 보다 엄밀하게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FA와 CFA,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검토를 통해 본 표본 내에서 측정모형의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척도 구조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정하는 근거로 해석되기에는 제한적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분리하거나 독립 표본을 활용하여 요인구조의 재현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정서기반 지역정체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문화기억의 직접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였으나, 그 기제를 별도의 변인으로 측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직접 관련

성의 재현 가능성과 설명 기제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17000000&pSeq=1818&pType=02
- 류승아 (2023). 현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방향: 공동체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637-655. <https://doi.org/10.20406/kjcs.2023.11.29.4.637>
- 박재민, 김무한 (2018). 지역주민의 집단기억 속 근대 장항의 기억의 장소분석: 의미연결망을 이용하여. *휴양및경관연구*, 12(4), 45-58. <https://doi.org/10.51549/JORAL.2020.12.4.045>
- 백경미, 류시영, 채용식 (2017). 축제 품질이 장소애착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2016 황성한우축제 방문객을 중심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13(2), 19-32.
- 서울특별시. (2025, 9. 29). 서울시 지방세 부담 통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628/S/1/dataSetView.do>
- 안치순 (2022). 지역도시 거주자의 장소애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강원동해안 3개 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3(1), 53-68. <https://doi.org/10.22987/jifso.2022.13.1.53>
- 엄영호, 엄광호 (2017).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2), 145-170. <https://doi.org/10.22783/krila.2017.31.2.145>
- 정태연, 전경숙, 박은미 (2008). 공동체의식의 함양에서 본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 469-485.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Altman, I., & Low, S. M. (Eds.). (1992).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 Amalia, A. S. (2019). 1960년대 이후부터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제도 변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smann, J. (1995).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25-133. <https://doi.org/10.2307/488538>
-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Bres, K., & Davis, J. (2001). Celebrating group and place identity: A case study of a new regional festival. *Tourism Geographies*, 3(3), 326-337. <https://doi.org/10.1080/14616680110055439>
- Devine-Wright, P. (2009). Rethinking NIMBYism: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in explaining place-protective ac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9(6), 426-441. <https://doi.org/10.1002/casp.1004>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ttps://doi.org/10.2307/3151312>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18>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L. A. Coser, Ed. & Tra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dalgo, M. C., & Herná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https://doi.org/10.1006/jev.2001.0221>
-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Lalli, M. (1992). Urban-related identity: Theory, measurement, and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4), 285-303.
[https://doi.org/10.1016/S0272-4944\(05\)80078-7](https://doi.org/10.1016/S0272-4944(05)80078-7)
- Lewicka, M. (2008). Place attachment, place identity, and place memory: Restoring the forgotten city pas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3), 209-231.
<https://doi.org/10.1016/j.jenvp.2008.02.001>
- Lewicka, M. (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207-230.
<https://doi.org/10.1016/j.jenvp.2010.10.001>
- Luhtanen, R., & Crocker, J. (1992).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302-318.
<https://doi.org/10.1177/0146167292183006>
- Ohmer, M. L. (2007). Citizen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 and its relationship to volunteers' self and collective efficacy and sense of community. *Social Work Research*, 31(2), 109-120.
<https://doi.org/10.1093/swr/31.2.109>
- Permentier, M., van Ham, M., & Bolt, G. (2007). Behavioural responses to neighbourhood reputation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2(2), 199-213.
<https://doi.org/10.1007/s10901-007-9075-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https://doi.org/10.3758/BRM.40.3.879>
- Proshansky, H. M., Fabian, A. K., & Kaminoff, R. (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57-83.
[https://doi.org/10.1016/S0272-4944\(83\)80021-8](https://doi.org/10.1016/S0272-4944(83)80021-8)
- Rollero, C., & De Piccoli, N. (2010). Does place attachment affect social well-being?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60(4), 233-238.
<https://doi.org/10.1016/j.erap.2010.05.001>
- Scannell, L., & Gifford, R. (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1), 1-10.
<https://doi.org/10.1016/j.jenvp.2009.09.006>
- Twigger-Ross, C. L., & Uzzell, D. L. (1996). Place

- and identity process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3), 205-220.
<https://doi.org/10.1006/jevp.1996.0017>
- Verba, S., Schlozman, K. L., &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Wacquant, L. (2007). Territorial stigmatization in the age of advanced marginality. *Thesis Eleven*, 91(1), 66-77.
<https://doi.org/10.1177/0725513607082003>
-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https://doi.org/10.1093/forestscience/49.6.830>

논문 투고일 : 2026. 04. 16
1 차 심사일 : 2026. 05. 04
게재 확정일 : 2026. 05. 20

The Effects of Cultural Memory on Local Pride and Participation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Affect-Based Local Identity

So-Hyeon Jeon

Gyu-Young Ha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ultural memory on local pride and participation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affect-based local identity among residents of Area A, a peripheral area of Seoul,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e participants were 187 residents of four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in Area A (86 men and 101 women, aged 19 to 65 year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5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institutions as well as online communities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Cultural memory, affect-based local identity, local pride, and participation intention were each measured with five items. Measurement model validation (EFA/CFA) and structural mode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and AMOS 28.0. The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memor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ffect-based local identity, and affect-based local identity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both local pride and participation intention. Bootstrap analyses with 5,000 resamples indicated that the indirect effects of affect-based local identity were significant for both outcome variables. In contrast, the direct effect of cultural memory on local pride was not significant, whereas its direct effect on participation intention was significant, indicating different patterns across the two outcome variab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ultural memory may extend to evaluative attitudes (local pride) and behavioral intent (participation intention) through affect-based local identity in an urban peripheral context. The study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affect-based local identity as a contextual factor in counseling, coaching, and mental health practice.

Key words : cultural memory, affect-based local identity, local pride, participation intention, urban periphery

부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화기억					
1 A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					
2 A지역의 대표 장소나 상징은 나에게 익숙하다.					
3 A지역의 과거와 전통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일은 주민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A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					
5 A지역은 나의 생활과 지역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정서기반 지역정체성					
1 A지역에 대해 정서적으로 애착을 느낀다.					
2 A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3 A지역의 공동체적 분위기는 나에게 따뜻한 감정을 준다.					
4 A지역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준다.					
5 A지역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역금지					
1 A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2 A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다.					
3 A지역을 다른 사람에게 살 만한 곳으로 추천할 수 있다.					
4 사람들이 A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5 A지역은 앞으로 더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행동의지					
1 A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역 행사,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					
2 A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활동이나 회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3 A지역의 문화, 역사를 보존하거나 알리는 활동(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기여하고 싶다.					
4 A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젝트(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5 A지역을 위한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기회(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